

코오롱, 바이오·유기EL 투자 확대

사업예산 2조원 책정 ... 유전자 치료방식 관절염 치료제 2008년 양산

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이 5월30일 “한계사업 부문의 합리화와 미래형 핵심사업 부문 집중을 통해 2008년까지 총 매출규모를 7조원으로 늘릴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이웅열 회장은 중국 난징(南京) 타이어코드 생산공장 준공식을 겸해 가진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중·장기 사업계획으로 “2008년까지 총 투자비로 2조원을 책정했으며 이 가운데 약 65%인 1조3000억원을 국내에 투자할 방침”이라고 밝혔다.

코오롱그룹은 앞으로 건설과 패션, 자동차용 섬유소재 등을 기반으로 삼고 고기능성 섬유나 포장 소재, 유기EL을 포함한 전자소재 등을 신 성장사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.

또 5월28일 완공된 중국 난징의 타이어코드 공장 외에 2006년까지 7000톤 규모의 타이어코드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자동차 에어백공장과 자동차용 시트원단 생산공장도 건설하는 등 중국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.

이웅열 회장은 한계사업 부문 정리에 대해 “7월께 1-2개 부문의 정리가 가시화될 것이며, 완전한 정리가 아니라 다른 기업과 합쳐 시장을 키워나가는 방식이 될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



기자회견중인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

이어 “미국 투자기업 티슈진(Tissuegene)이 개발중인 획기적인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의 성공 여부에 큰 관심이 있다”며 “전세계 관절염 치료제 시장은 600억달러에 달하는 만큼 임상실험에만 성공하면 큰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티슈진은 1999년 코오롱이 미국에 설립한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피부세포에 치료 유전자를 이식하고 배양한 뒤 주사기로 관절 안에 주입함으로써 손상된 연골을 재생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방식의 퇴성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.

지금까지 총 1000만달러가 투자된 티슈진의 관련기술은 2001년 6월 미국특허를 취득했으며 9월께 동물을 이용한 독성실험 결과가 나오면 2004년부터 임상실험에 들어가 2008년

부터는 제품을 양산한다는 계획이다.

코오롱그룹은 조만간 일본에도 <티슈저팬>을 설립할 계획이며 미국과 일본, 한국에서 단계적으로 기업공개도 추진할 예정이다.

이웅열 회장은 또 “오리온전기의 유기EL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”고 설명하고 “다른 부문은 생각이 없으나 유기EL 사업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”며 인수 의지를 표명했다.

코오롱그룹은 5년 전부터 유기EL 부문에 대한 진출을 추진해 왔으며, 5월19일에는 충남 홍성에 유기EL 공장을 완공하고 시제품 생산에 돌입했다.

한편, 코오롱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각 계열기업의 여건이 충족되는 2-3년 안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지주회사에 편입할 계열기업을 선별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.

이웅열 회장은 “웰빙(Well-Being) 열풍을 겨냥한 <웰니스(Wellness)> 사업은 4년 전부터 아이디어를 내고 준비를 진행해 왔다”며 “앞으로 모든 계열기업의 사업에 웰니스 개념을 접목하는 등 관련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04/06/01>